

월드컵 외국인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stimating Tourism Expenditures Spended by Foreign Tourists for the
2002 FIFA World Cup and Measuring their Economic Impacts

李 忠 基**

Lee, Choong-Ki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World Cup tourists and their per capita expenditures, while examining economic impacts of the expenditures using an input-output model. For this end, on-sit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World Cup foreign tourists during the in-coming World Cup visitors at the major international airports. The study revealed that foreign tourists for the 2002 World Cup consisted of 57.7% of the total inward tourists and per capita expenditure was estimated to be 1,610 U.S dollars. The input-out analysis indicates that total foreign receipts earned by the World Cup generated about 973 million U.S dollars of output impact, 223 million dollars of income impact, 513 million dollars of value-added impact, 54 million dollars of tax impact, 26,807 equivalent full time jobs, and 85 million dollars of import impact, respectively.

핵심용어: 2002월드컵, 산업연관모델, 관광승수, 경제적 파급효과

* 본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419).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관광경제, 카지노산업, 메가이벤트(월드컵/올림픽 등)에 관심 있음. e-mail: ckleee@khu.ac.kr

I. 서론

월드컵은 스포츠 중에서 단일종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Mega-Event로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관광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위 'Business World Cup'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한, 3년에 걸쳐 예선과 본선경기가 치러지고, 10개 지역에 분산되어 개최되며, TV시청인구가 600억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월드컵은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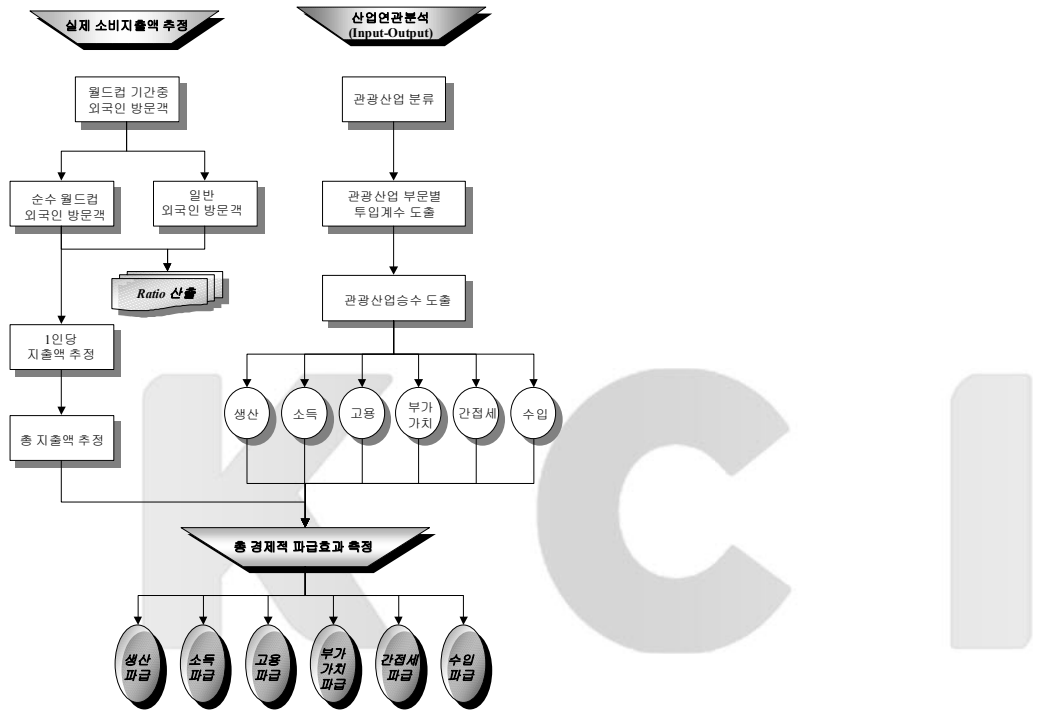
월드컵 외래관광객의 관광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는 개최국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Pyo, Cook, & Howell, 1988),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며, 소득, 고용, 재정수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월드컵이 관광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월드컵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월드컵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를 추정하고, 그들의 지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월드컵목적 외래관광객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월드컵 기간 중 순수 월드컵목적 외래관광객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표개발은 향후 메가이벤트의 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Burgan과 Mules(1992)는 "Economic Impact of Sporting Event"란 논문에서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방문하지 않았을 관광객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메가이벤트로 인하여 창출된 순수 방문객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번 월드컵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드컵과 관련한 방한 외래관광객만을 포함해야하며, 월드컵과 무관한 일반외래관광객까지 포함시킬 경우 과대평가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패턴은 일반외래관광객의 그것과 다를 것이다. 지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순수 올림픽관련 방문객의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설문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으로서는 전례 없는 이벤트였다. 그러기 때문에 월드컵관련 외래관광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위

와 같은 월드컵관련 관광객의 비율 지표와 1인당 지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리지표를 이용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포스트월드컵관련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번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수를 추정할 수 있는 비율지표(순수 월드컵외래객 對 일반외래관광객 비율)를 산출하고,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을 추정하는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월드컵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파급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그림 1〉 연구목적 참조).



〈그림 1〉 연구목적 흐름도

II.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1. 이벤트방문객의 소비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월드컵이 메가이벤트로써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외 문헌을 검토해보면 이벤트방문객의 소비패턴이나 경제적 효과를 측정 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부 논문 중 Della Bitta(1977)는 Rhode Island Newport에서 열렸던 "Tall Ship" 이벤트행사에 관한 방문객 소비패턴을 조사하였으며, 卍경제에 1,5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Pyo et al.(1988)은 역대 올림픽 개최국의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을 조사하였는데, 몬트리얼올림픽은 7,700만~1억3,500만 달러, LA올림픽은 32억 9,0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Long과 Perdue(1990)는 이벤트방문객의 소비패턴이 개최지역과 타지역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방문객의 총지출액(\$43,689)의 74.9%는 지역외부로 누출되고, 나머지 25.1%만이 개최지역에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Murphy와 Carmichael(1991)은 "British Columbia Winter Games" 방문객수와 소비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총지출액은 C\$479,516으로 추정되었다. Kang과 Perdue(1994)는 "Olympic Impact Curve"를 토대로 '88서울올림픽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3년(1988~1990)간 경제적 효과는 1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은 Burgan과 Mules(1992)의 연구인데, 그들은 스포츠이벤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올바른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이벤트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모두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방문하지 않았을 관광객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이 방문한 일반관광객들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객설문조사를 통하여 순수 이벤트방문객을 확인해내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2. 산업연관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경제기반모델, 수입-지출모델, 그리고 산업연관모델이 있다. 전자의 두 모델은 주로 소규모 지역경제 분석에 이용되지만,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후자의 마지막 모델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Fletcher, 1989).

Leontief(1966)가 개발한 산업연관모델은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수입을 포함한 수출이나 민간소비지출과 같은 최종수요의 증가로 전체 산업에 파급시킨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그러나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이는 투입계수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과 원재료의 공급이 항상 탄력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투입계수는 한 산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파급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며,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생산유발계수는 산업간의 연쇄파급으로 인한 직간접효과 또는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나타낸다. 한 나라의 경제가 n 개의 산업부문으로 구성되고, 수입액을 M , 최종수요를 Y , 산업부문별 총 산출액을 X 라고 한다면, 산업부문별 산출액은 그 부문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서 수입액을 차감 한 것과 같으며, 지면관계상 이를 간단한 행렬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quad AX + Y - M = X$$

$$[2] \quad X = (I - A)^{-1}(Y - M)$$

여기서, A =국산투입계수행렬, X =총산출액벡터, Y =최종수요벡터, M =수입액벡터, I =대각행렬

여기서 역행렬 $(I-A)^{-1}$ 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며, 이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가 주어졌을 때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직·간접 및 유발 생산효과를 나타낸다.¹⁾ 부연하여 설명하면 직·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유발효과까지를 포

1) 본 연구에서는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생산유발계수행렬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행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되었다. 여기서 생산유발계수행렬은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포함한 생산승수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취업(유급종사자만 포함)계수를 곱해주면 고용승수, 부가가치계수를 곱하면 부가가치승수, 소득(비용자보수)계수를 곱하면 소득승수, 세입계수를 곱하면 세입승수, 수입계수를 곱하면 수입승수가 각각 도출된다. 각 승수

합한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家計部門인 피용자보수(부가가치의 한 부분)와 民間消費支出(최종수요의 한 부분)부문을 하나의 산업부문으로서 내생부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서 가계부문인 피용자보수의 합계와 이에 대응하는 민간 소비지출의 합계는 같아야 하며,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에는 이 두 부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꼭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음)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부문과 최종수요부문을 조정하여 위의 가계부문을 일치시켰다(Miernyk, 1965).

3.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경우 관광산업을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의 분류 또는 통합방식에 따라 각종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며(김남조, 1998), 그 결과 관광산업의 총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관광산업을 대체로 숙박업, 교통업, 음식점업, 도매/소매업(쇼핑업), 유흥 및 레크레이션업, 기타서비스업(Ruiz, 1985; Smith, 1988; Heng & Low, 1990; UN 1990; Hurley et al., 1994)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을 크게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또는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교통개발연구원, 1992; 권경상, 1994; 김규호·김사현, 1998; 이충기, 1999; 이충기·박창규, 1996; 한국관광공사, 1993; 한국관광연구원, 1997; Lee, 1992, 2001, 2002; Lee & Kwon, 1995, 1997). 물론 교통통신업과 문화오락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달리 분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문인 숙박업, 음식점업, 그리고 쇼핑업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분류방식이 국가마다,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분류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Smith(1988)는 교통부문 중 화물운송은 관광상품에 포함시키지 말고 승객운송만을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0)에서는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관광비를 산출하였고, 최승묵·김남조(2002)는 이 중에서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최종수요를 토대로 수요측면 관광비와 부가

의 모형식에 관해서는 한국은행(2001)을 참조바람.

가치를 토대로 공급측면의 관광비를 고려하여 산업연관표상 관광산업을 새로이 분류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

월드컵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비율자료가 필요하며, 둘째 월드컵관련 1인당 지출액 자료가 필요하다. 첫 번째 비율자료에 대해서 본 연구자와 한국관광공사 실무자간에 설문지 구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① 월드컵 직접참가자, ② 월드컵 간접참가자(선수단, 심판, 임원진, 기자단 FIFA Family, 동반자 등), ③ 일반외래관광객으로 분류하고, 월드컵으로 인한 외래관광객은 월드컵 직접참관자와 간접참관자(①+②)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월드컵 기간 중(2002. 6. 1~6. 30) 인천/김해/제주공항 출국대합실과 부산항 및 인천항 출국대합실에서 탑승대기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4,886매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02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국관광공사자료를 이용하여 순수 월드컵목적 외래관광객 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출경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월드컵목적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인당 지출비용에 관한 설문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출국하는 외래관광객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감안하여 지출항목을 중점적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월드컵 기간 중(2002. 6. 1~7. 6), 인천공항공단의 허가를 받아 출국장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총 512매를 회수하였으며, 여기서 지출경비를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매를 제외한 485매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산업연관표상 관광산업 분류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1)에서 최근에 발간한 『98 산업연관표』중 생산자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비경쟁수입형태인 국산거래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의 402부문으로부터 관광산업을 아래와 같이 지출항목을 토대로 5개 부문²⁾으로 세분화하고, 나머지 일반산업부문은 24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관광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숙박업, 음식점업, 그리고 쇼핑업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나, 관광교통업과 문화오락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Smith(1988)가 제안한 바와 같이 첫째, 관광·교통업 중 화물부문을 모두 제외하고 여객부문만을 관광산업에 포함시켰다. 둘째, 외항운송업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업을 관광산업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외항운송업의 경우 화물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객부문은 단지 0.1%에 그치고 있어 관광산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안 및 내륙운송업의 경우에도 여객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8%만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셋째, 기타운수관련서비스업에는 여행사가, 기타오락서비스업에는 카지노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광산업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목적 외래관광객의 지출항목을 추정하기 위하여 운동경기관련 부문을 문화오락서비스업에 포함시켰다.

IV. 분석결과

1.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비율 추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드컵 기간에 방한 한 외래관광객 중 월드컵 직접참가자는 전체의 약 34.6%, 월드컵 간접참가자는 23.1%, 일반외래관광객은 4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비율은 전체의 5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월드컵 기간 중 방한 한 순수 월드컵관광객을 추정하는

2) 숙박업(산업연관표 333기본부문); 음식점업(332); 관광교통업(여행사 346, 철도여객 334, 도로여객 336, 항공운송 340); 소매업(331); 문화오락서비스업(문화서비스 386-387, 영화연극 388-389, 운동경기관련 서비스 390, 기타오락서비스 391, 세탁이미용 396-397).

데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향후 포스트월드컵에 따른 외래관광객 수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위의 지표를 이용하여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을 산출한 결과 총 232,78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월드컵 직접참가자는 139,553명, 간접참가자는 93,228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비율 추정

외래관광객 유형 ^a		표본수(명)	구성비(%)	외래관광객 ^b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① 월드컵 직접 참가자	1,690	34.6	139,553
	② 월드컵 간접 참가자	1,129	23.1	93,228
소계		2,819	57.7	232,782
③ 일반외래객		2,067	42.3	170,684
계		4,886	100.0	403,466

^a한국관광공사(2002a). ^b월드컵 기간중 방한외래객(한국관광공사, 2002c).

2. 1인당 지출액 및 총지출액 추정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약 193만원(US\$ 1,61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외래관광객 지출액인 US\$ 1,211(한국관광공사, 2002b)에 비하여 32.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월드컵관련 외래객 1인당 및 총지출액 추정

지출항목	1인당 지출액 ^a		총지출액 ^c	
	원	US\$ ^b	억원	백만달러
숙박비	675,931	563	1,573	131
식음료비	310,382	259	723	60
관광교통비	195,483	163	455	38
쇼핑비	289,930	242	675	56
문화오락서비스 ^d	460,052	383	1,071	89
계	1,931,778	1,610	4,497	375

^aFIT지출비용*FIT비율(89.3%)+Group지출비용*Group비율(10.7%)을 적용하여 1인당 지출액을 산출함. 국제항공료는 1인당 지출액에서 제외됨.

^b환율 1\$=1,200원 적용; ^c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232,782명)*(1인당 지출액).

^d월드컵티켓비용 포함.

1인당 지출액을 세분화해볼 때 숙박비가 전체의 35.0%(\$563)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문화오락서비스비(23.8%, \$383), 식음료비(16.1%, \$259), 쇼핑비(15.0%, \$242), 관광교통비(10.1%,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반외래관광객에 비하여 문화오락서비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은 월드컵티켓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총지출액은 4,497억원(\$3억7,500만)으로 산출되었다.

3. 관광승수 도출

생산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및 유발생산효과를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부문의 생산승수는 쇼핑업과 관광교통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산업 평균치(2.52)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업의 생산승수는 2.86으로 29부문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업의 경우는 2.61, 문화오락서비스업의 경우는 2.73으로 나타났다.

소득승수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출되는 개인소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광부문의 소득승수는 관광교통업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평균치(0.47)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이 소득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특히, 음식점업의 소득승수는 0.67로 29부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쇼핑업의 경우는 0.52, 숙박업은 0.62, 문화오락서비스업은 0.64로 각각 나타났다.

고용승수(100만원당 1단위로 표시)는 관광교통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 평균치(0.02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업과 숙박업은 29개 산업부문 중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매우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며, 이는 또한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시사해 준다. 관광산업의 고용승수를 살펴볼 때, 고용창출효과는 수출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는 국내산업의 부문별 산출액에서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중간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①被傭者報酬, ②營業剩餘, ③固定資本消耗, ④間接稅, ⑤補助金(공제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관광교통업을 제외하고 관광부문의 부가가치승수는 전 산업 평균치(1.15)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음을 지적해준다. 특히, 음식점업(1.45), 문화오락서비스업(1.43), 그리고 숙박업(1.41)의 경우는 29부문 중 각각 3, 4,

〈표 3〉 관광승수 도출^a

산업부문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간접세		수입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농림수산업	2.1723	25	0.2708	26	0.0161	23	1.1130	17	0.0835	21	0.1577	3	
광업	2.3415	22	0.4777	17	0.0207	17	1.3087	11	0.0806	23	0.1691	4	
음식료품업	2.5597	16	0.3067	25	0.0156	25	1.0353	21	0.1895	2	0.2714	12	
종이/목재업	2.7917	8	0.4982	13	0.0230	13	1.1249	15	0.1221	8	0.3733	18	
석유업	1.2630	29	0.0745	29	0.0026	29	0.4732	29	0.2214	1	0.6013	29	
화학업	2.4976	17	0.3442	23	0.0156	26	0.9056	25	0.0868	20	0.4386	24	
비철금속업	2.7440	12	0.4847	15	0.0201	18	1.2088	12	0.1042	14	0.2759	13	
금속제품업	2.7672	10	0.3632	22	0.0160	24	0.9576	22	0.0778	24	0.4056	23	
일반기계업	2.8661	6	0.4933	14	0.0241	12	1.1142	16	0.0990	16	0.3791	19	
전자/전기업	2.4842	18	0.3776	21	0.0173	22	0.9078	24	0.0715	27	0.4698	25	
정밀기기업	2.7646	11	0.5263	9	0.0272	9	1.1309	14	0.0874	19	0.3954	21	
수송장비업	2.9003	4	0.5010	12	0.0200	19	1.1029	18	0.0918	18	0.3981	22	
기타제조업	2.7816	9	0.5308	8	0.0271	10	1.1826	13	0.1057	12	0.3483	15	
전력수도업	1.9804	27	0.2519	27	0.0107	27	0.8999	26	0.0651	28	0.3519	16	
건설업	2.9507	2	0.6327	5	0.0322	6	1.3856	6	0.1110	9	0.2471	11	
도매업	2.4038	21	0.5518	7	0.0272	8	1.3670	8	0.1060	11	0.1849	5	
운수보관업	2.2225	24	0.5235	10	0.0222	15	1.3366	10	0.1043	13	0.1869	6	
금융부동산업	2.2671	23	0.4828	16	0.0224	14	1.3517	9	0.1259	7	0.1312	1	
공공행정교육	3.2245	1	1.0045	1	0.0450	4	1.7239	1	0.1071	10	0.2806	14	
사회서비스	2.8720	5	0.6648	3	0.0492	3	1.4622	2	0.1036	15	0.2026	7	
수출부문	섬유가죽	2.6249	14	0.4403	19	0.0251	11	1.0611	20	0.0748	26	0.3791	20
	반도체	1.5018	28	0.1790	28	0.0078	28	0.5835	28	0.0283	29	0.5955	28
	TV	2.4704	19	0.3113	24	0.0193	20	0.7910	27	0.0814	22	0.5203	27
	승용차	2.9005	3	0.4606	18	0.0182	21	1.0938	19	0.1468	6	0.3668	17
관광부문	쇼핑업	2.4061	20	0.5192	11	0.0319	7	1.3719	7	0.0926	17	0.1473	2
	음식점업	2.8565	7	0.6706	2	0.1015	1	1.4498	3	0.1808	3	0.2208	10
	숙박업	2.6132	15	0.6169	6	0.0811	2	1.4117	5	0.1686	4	0.2052	9
	관광교통	2.0928	26	0.4039	20	0.0209	16	0.9231	23	0.0764	25	0.4807	26
문화오락	2.7301	13	0.6386	4	0.0337	5	1.4340	4	0.1489	5	0.2047	8	
전산업 평균	2.5173		0.4690		0.0274		1.1453		0.1084		0.3238		

^a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나타냄. ^b순위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부문임을 의미함.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사용에 대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稅金과 강제적 徵收料金 및 專賣益金을 포함한다. 관광산업 중 음식점업(0.18), 숙박업(0.17), 그리고 문화오락서비스업(0.15)의 간접세승수는 전 산업 평균치(0.11)를 상회하고 있으며, 29개 산업부문 중 각각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광산업의 간접세승수는 대체로 수출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승수는 관광교통업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평균치(0.32)보다 낮으며, 수출 산업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언하면 외화가득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특히, 쇼핑업의 수입승수는 0.15로 29개 산업부문 중 두 번째로 수입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월드컵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에 의한 지출액인 4,497억원(3억7,500만 달러)이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발생시킨 생산파급액은 1조 1,676억원(9억7,300만 달러), 소득파급액은 2,673억원(2억2,300만 달러), 부가가치파급액은 6,150억원(5억1,300만 달러), 재정수입파급액은 653억원(5,400만 달러)로 각각 평가되었다. 반면에 輸入파급액은 1,020억원(8,500만 달러)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지출액이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통하여 창출한 고용자 수는 26,807명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관광부문별로 살펴보면, 숙박부문의 파급효과가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간접세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부문 중 월드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월드컵 경기와 티켓부문이 포함된 문화오락부문은 관광부문 중 월드컵의 영향을 두 번째로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부문은 고용파급효과에 있어서는 두 번째, 나머지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으로 인하여 쇼핑부문은 관광부문 중 네 번째, 관광교통업은 가장 낮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부문	생산파급 억원 (백만불)	소득파급 억원 (백만불)	고용파급 명	부가가치 억원 (백만불)	간접세파급 억원 (백만불)	수입파급 억원 (백만불)
숙박 부 문	4,112 (343)	971 (81)	12,761	2,221 (185)	265 (22)	323 (27)
식음료 부 문	2,064 (172)	485 (40)	7,334	1,048 (87)	131 (11)	160 (13)
관광교통 부 문	952 (79)	184 (15)	951	420 (35)	35 (3)	219 (18)
쇼 핑 부 문	1,624 (135)	350 (29)	2,153	926 (77)	62 (5)	99 (8)
문화오락 부 문	2,924 (244)	684 (57)	3,609	1,536 (128)	159 (13)	219 (18)
계	11,676 (973)	2,673 (223)	26,807	6,150 (513)	653 (54)	1,020 (85)

V. 결론 및 시사점

Burgan과 Mules(1992)가 주장했듯이, 메가이벤트로 인한 순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메가이벤트와 관련된 방문객 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월드컵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월드컵과 관련 없이 방한하는 일반의래관광객까지 포함시켜 측정할 경우 월드컵효과를 과대평가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수를 추정하기 위한 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와 본 연구자와 공동으로 설계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비율은 전체의 5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월드컵 기간 중 방한 한 순수 월드컵관광객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향후 포스트월드컵에 따른 외래관광객 수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위의 지표를 이용하여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수를 산출한 결과 총 232,78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지출액 패턴은 월드컵과 무관한 일반의래관광객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순수 올림픽관련 방문객의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방한 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인당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약 193만원(US\$ 1,61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의래관광객 지출액인 US\$ 1,211에 비하여 32.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출액 중 숙박비의 비중(35.%, \$563)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오락서비스(23.8%, \$383)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문화오락서비스부문에 월드컵티켓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총지출액은 4,497억원(\$3억7,500만)으로 산출되었다.

사실 위와 같은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월드컵 관광수요 및 경제적 효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대리지표를 이용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메가이벤트관련 방문객 비율지표와 1인당 지출액 자료는 향후 포스트월드컵의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추정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 수와 이들

에 의한 소비지출액 조사자료를 토대로 순수 월드컵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친 생산파급액은 1조1,676억원(9억7,300만 달러), 소득파급액은 2,673억원(2억2,300만 달러), 부가가치파급액은 6,150억원(5억1,300만 달러), 재정수입파급액은 653억원(5,400만 달러)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輸入파급액은 1,020억원(8,500만 달러)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순수 월드컵관련 외래관광객의 지출액으로 창출한 고용자 수는 26,807명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관광부문별로는 숙박부문에 이어 문화오락서비스부문과 식음료부문이 가장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향후 연구과제로는 산업연관표에서 최종수요를 고려한 수요측면의 관광비와 부가가치를 고려한 공급측면의 관광비를 함께 고려하여 관광부문을 새로이 분류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발효과를 추정하고자 가계부문을 내생화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비계수의 추정을 통하여 내생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교통개발연구원(1992). 『관광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권경상(1994). 『한국관광산업의 비교우위성 분석』,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규호·김사현(1998).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22(1): 151-171.
- 김남조(1998).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통합 방법에 의한 관광승수의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22(1): 172-188.
-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 이충기(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2(3): 263-270.
- 이충기(2002). 월드컵대회 국제관광부문 파급효과 분석. 『월드컵기간 방한외국인 설문조사』. 한국관광공사.
- 이충기·박창규(1996). 한국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19(2), 27-45.

- 최승목·김남조(2002). 관광비와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지역간 연관 분석. 『관광학연구』, 25(4): 143-160.
- 한국관광공사(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 한국관광공사(2002a). 『월드컵기간 방한외국인 설문조사』. 서울.
- 한국관광공사(2002b).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2c). 『한국관광통계』. www.knto.or.kr
- 한국관광연구원(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97-07.
- 한국은행(2001). 『199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서울.
- Burgan, B. & Mules, T.(1992). Economic impact of sporting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700-710.
- Della, B., Albert, J., Loudon, D., Geoffrey, D. & Weeks, R.(1977).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a short-term tourist ev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2): 10-15.
- Fletcher, J.(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514~529.
- Heng, T. & Low, L.(1990).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2): 246-269.
- Hurley, A., Archer, B. & Fletcher, J.(1994). The economic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grants for tourism in the republic of island. *Tourism Management*, 15(3): 203-211.
- Kang, Y. S. & Perdue, R.(1994). Long-term impact of a mega-event on international tourism to the host country: a conceptual model and the case of the 1988 Seoul olympics.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6(3/4): 205-225.
- Lee, C. K.(1992).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inbound tourism on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its distributional effects on income classes*, A Ph. 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 _____ (2001). Review of the past '88 Seoul olympics: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a mega-event.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10(2): 83-100.
- Lee, C. K. & Kwon, K. S.(1995). Importance of secondary impact of foreign tourism receipts on the South Korean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2): 50-54.

- _____ (1997). The economic impact of the casino industry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1): 52-58.
- Leontief, W.(1966). *Input-Output Economic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 Long, P. & Perdue, R.(1990). The economic impact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4): 10-14.
- Miernyk, W.(1965). *The Elements of Input-Output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 Murphy, P. & Carmichael, B.(1991). Assessing the tourism benefits of an open access sports tournament: the 1989 b.c. winter gam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9(3): 32-36.
- Pyo, S. S., Cook, R. & Howell, R.(1988). Summer olympic tourist market: learning from the past. *Tourism Management*, 9(2): 137-144.
- Ruiz, A.(1985). Tourism and the economy of Puerto Rico: an input-output approach. *Tourism Management*, 6 (March): 61-65.
- Smith, S.(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79-190.
- United Nations(1990). *Guidelines o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NY.

2002년 12월 26일 원고 접수 · 2003년 2월 28일 최종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

